

보도일시	2022. 3. 1. (화)		
단체명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를위한정책위원회 : 노웅래, 이한주
담당자	정대진 교수(010-9073-2502) 김효동 팀장(010-4352-4747)	E-mail	jungdaejin@gmail.com hdcnd0215@gmail.com
사진	0	영상	X

※ 붙임 1. 지지선언문
붙임 2. 행사 사진

우리에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 민주와 평화의 가치를 수호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 평화의 소녀상 조각가 김운성,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우희중 교수, 전남대학교 3학년 학생 김민국 등 애국지식인 10만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이재명 후보(서면대독)도 “3.1정신은 민주화 고비마다, 경제위기 고비마다 빛을 발했다” 며, “103년 전 오늘 이 땅의 지식인들이 독립을 위해 펜이 아닌 태극기를 들었듯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힘을 모아달라” 당부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위원회 상임청년위원장,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홍걸** 국회의원(무소속) 등도 현장 참석하여 이재명 후보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지지 호소

3월 1일 화요일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애국지식인 10만 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는 200여명이 넘는 애국지식인들이 직접 참석하였고, 애국지식인 33인 대표를 대신하여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우희중 상임대표, 충신대학교 김한나 교수,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작가가 지지선언문을 함께 낭독하였다.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한 애국지식인들은 3.1운동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 소중한 가치들을 상기시키며, 그 정신을 이어 받아 ▲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유능한 대통령 ▲ 국민과 국가를 편가르는 대신 화합과 평화를 지향할 유능한 대통령 ▲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아보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챙기는 진짜 유능한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천명하고 지지를 선언하였다.

지지선언문 낭독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일본계 한국인이자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삼일절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 이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만이 이 나라를 계속 발전시키고, 또 이 한반도를 하나의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 후보라고 확신한다” 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김진향** 상임의장은 분단체제의 지속 아래 “전쟁을 끝내는 정부”,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 는 오직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노래 ‘이등병의 편지’ 로 익히 알려진 **김현성** 작곡가 또한 지지발언에 나서 “이재명 후보는 모든 서민의 삶을 체득한 사람” 이라며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지고 역사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남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국** 학생은 소위 ‘MZ세대’ 인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무수저의 삶을 살아온 이재명 후보야말로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서면대독)도 “3.1정신은 민주화 고비마다, 경제위기 고비마다 빛을 발했다” 며, “103년 전 오늘 이 땅의 지식인들이 독립을 위해 펜이 아닌 태극기를 들었듯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힘을 모아달라” 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위원회 상임청년위원장, **김홍걸** 국회의원(무소속),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선대위 나를위한대한민국 상임위원장, **이우종** 선대위 나를위한대한민국 위원장, **이한주** 선대위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위원장, **송기도**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하여 애국지식인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지의 확산을 호소하였다. 끝.

붙임 1. 지지선언문

3.1절 10만 애국지식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3.1운동의 불을 댕긴 선조들은 결국 나라를 구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일꾼이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10만 지식인 지지를 선언한다.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준 나라가 친일·반평화·기득권·불평등·양극화의 나라로 퇴보하지 않도록 투표로 행동할 것이다.

3.1운동 당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선조들은 100년 뒤 대한민국의 후손들인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것이다.

우리의 피땀이 서린 세금을 주권자인 우리가 구걸하듯 나누어 달라고 호소하는 나라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자영업자의 코로나 빚을 국가가 짊어지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후보만이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자신의 굵은 원팔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단함과 한숨을 간직하고 매일 낮은 곳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이다.

청년들이 편을 갈라 싸우지 않게 하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지 않는 평화를 약속하고 지키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통령 후보이다.

거대 양당의 낡은 정치 구도를 청산하고 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당제 정치, 통합정부, 국민내각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의 찢긴 삶을 싸매줄 유일한 대통령 후보이다.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대전환의 시기에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만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그려나갈 일꾼이다.

3.1운동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우리와 같이 숨쉬고 깨달으며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과를 보여준 사람 중에서 일꾼을 세우는 나라이다.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 삶에 주인 되게 하는 일꾼이 필요한 나라이다.

국민의 뜻이 아닌 점술에 뜻을 묻고, 선민 엘리트 의식에 빠져 끼리끼리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자가 일꾼이 되는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나라가 아니다.

3.1운동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아 가꾸어 온 우리나라는 세계 5강 경제 강국을 바라보는 나라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 지키기 위해 오늘 10만 지식인 지지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곳곳의 지식인과 시민은 이제 100만, 1000만의 물결이 되어 동참할 것이다.

2022년 삼일절은 3월 9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호탄이다.

2022년 3월 1일

10만 애국지식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자 일동

붙임 2. 행사 사진



사진 1. 3.1절 10만 애국지식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참여자



사진 2. 이재명 후보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사진 3.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김한나 총신대 교수, 김운성 평화의 소녀상 작가(왼쪽부터)



사진 4.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앞줄 왼쪽 두 번째)



사진 5.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앞줄 가운데)



사진 6.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성 작곡가 겸 가수(앞줄 가운데)



사진 7.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김민국 전남대 3학년 학생(앞줄 왼쪽)



사진 8. 축사를 전하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나를위한대한민국 상임위원장(왼쪽 두 번째)



사진 9. 축사를 전하고 있는 김홍걸 국회의원(무소속) (왼쪽 두 번째)



사진 9. 축사를 전하고 있는 이종걸 전 국회의원 (앞줄 가운데)



사진 11. 축사를 전하고 있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장경태 선대위 상임 청년위원장 (앞줄 가운데와 오른쪽)